

# 순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나선다

### 21일부터 지역 청년 400여명 참여 간담회 개최... 일자리 포털 제작

순창군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이 돌아오는 순창 만들기에 본격 나서 군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제일 화두로 강조한데 이은 조치로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선도적 대응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군은 우선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는 21일 순창읍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30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며 4회 진행하며 만 18세 이상 만 3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4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는 순창읍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27일에는 동계면사무소에서 인계, 동계, 적성,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된다.

26일에는 풍산면사무소에서 풍산, 금과, 팔덕, 유등 지역 청년들과 마지막 30일에는 북흥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생차, 북흥, 구림면 청년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순창군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이 돌아오는 순창 만들기에 본격 나서 군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담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바로 알고 고충과 건의된 내용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 외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본격 시동을 건다. 우선 지역의 모든 일자리를 한눈에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을 제작한다.

6월 사업을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정보의 집적화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지역청년들이 참여시 지원과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청년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안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시스템에 의한 일자리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일자리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청년들의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귀중한 자원이니 만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21일부터 진행되는 간담회는 그 시발적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N양념식품산업, 지역핵심브랜드 가치 급부상

### 임실군, 배추재배 기술 교육 등 실시 이어 11월 18~19일 '김장페스티벌' 개최

임실N양념식품산업이 임실군의 미래농업을 선도해나갈 핵심브랜드 가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양념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에 도내 처음으로 개최한 김장축제가 지역민은 물론 전주 등 인근 도시민, 타 지역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올해 축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의 축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은 오는 11월 18일과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군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배추작목반 조직과 교육과 배추 재배관리 교육, 우수 배추품종 선정, 절임배추 매뉴얼 작성, 김지명인과 함께하는 양념레시피 등 원물의 품질고급화와 균일화 등을 위해 직접 품질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한 향후 일정 역시 빠곡하다. 먼저 군은 14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박수형 박사를 초청, 임실군 지리여건, 기후조건에 맞고 김치를 담그었을 때 가장 맛있는 배추품종을 선정하기 위한 배추 품종과 특성, 재배관리 등 배추재배 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내달에도 2차 교육을 마련해 배추재배 매뉴얼 교육과 김장축제 운영 및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농가 조직화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특히 이달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배추재배농가, 행정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임배추 품종을 선정해 7월까지 배추 생산자 및 절임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생산자 조직화 교육 및 재배방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에는 사업단 관계자와 절임배추 작목반장, 생산농가 대표농가 등을 대

상으로 개최되는 운영주체 워크숍을 열고, 2017년 김장축제 운영방안과 생산농가 참여 방법 및 관련 규정, 각종별 역할 규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과 8월에 김장김치와 절임배추의 소비자 신청 홍보를 적극 강화하는 한편 9월부터는 김장페스티벌을 적극 알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말에는 절임배추 매뉴얼화를 위한 절임배추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전까지 페스티벌 참가 신청자를 모집, 접수한다.

작년에 처음 개최한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배추, 생강, 양파 등을 이용한 김장축제로 대도시 소비자 500세대 등 약 1,5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올해 열리는 김장페스티벌에는 대도시 소비자 1,000세대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순창군·경 어울림 한마당 개최

### 군장병·의경 300여명 참석

순창군·경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14일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300여명의 군장병, 의경, 사회복무요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순창시암연합회(신도회)에서 주관 했으며 호국 보훈의달을 맞이해 지역에 근무하는 군장병, 의경, 시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무기간동안 지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행사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장병, 의경 등이 대거 참여해 뜻을 살렸다. 한마당 행사는 오전 체육대회와 오후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체육행사에서는 배구경기와 축구경기가 진행돼 열띤 실력을 겨뤘다.

특히 젊은 군인들과 의경, 사회복무요원들은 각 소속기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를 펼쳐 보는 이들에게 손을 땀을 쥐게 했다.

오후 장기자랑에서는 노래와 춤 등 참여 군·경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자리가 됐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호국 보훈의 날 6월을 보내면서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 사회복무요원 여러분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고 순창에서 근무하는 동안 좋은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행사를 준비해준 순창시암연합회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시, 싸이클 대회 교통관리 안전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지난 14일 국내 최대규모 도로일주 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7 행사 코스 교통관리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여수를 출발 5일간 총 770km를 경주하는데 임실경찰서는 순창에서 인수받아 덕치면 천담교에서 하운암 육정호산장 앞까지 약20km를 경유하는 교통관리로, 국제사이클연맹(UCI)에 등록된 11개국 20개팀(해외 14팀, 국내6팀)으로 구성된 200명의 사이클 선수들이 순위 경쟁을 펼쳤는데 임실경찰서는 교통 및 지역경찰, 상설중대 등 40여명을 투입해 50여분 가량 대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순창군, 무더위 식중독 제로화 추진

순창군이 지난 13일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 식중독 제로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순창문화회집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으며 관내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요양시설, 무료급식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자 60여명이 참여했다.

강의는 전북도 식중독예방 전문 강사인 김인경 강사가 진행해 종사자들에게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식중독 원인부터 구체적인 예방법 등을 사례를 들어 강의하고 각종 식품위생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대규모 풍수해 대응 현장훈련 실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14일 오전 11시 요천 둔지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2017 대규모 풍수해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훈련은 풍수해 대응태세점검 및 실제상황을 적용한 재난대응훈련이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주관한 시범훈련으로 이현웅 도민안전실장과 이환주 시장 등 남원지역 기관단체장이 참관하였으며, 남원시 12개부서와 남원시 관내 12개 기관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극한기상으로 인한 제방붕괴 및 차량우실 등 대규모 풍수해발생에 따른 재난대응 현장훈련으로 응급복구, 수난구조, 이재민 구조 등 상황별 훈련이

전개되었다. 남원시에 따르면 여름철 대규모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라 요천천 제방 붕괴를 가상하였으며 '태풍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비상근무 체제부터 재난현장 수습·복구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각자 자신의 소임을 다한 임무를 수행하여 단계별 대처를 통해 짜임새있는 재난대응태세를 재구축·확립하였으며, 남원시를 비롯해 12개 기관·단체에서 195명이 참여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스킨스쿠버, 경찰청 후송헬기 등 장비 38대를 동원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인접 시군인 순창군에 재난관리지원 응원요청에 따라 트럭 2대, 양수기 4대가 실제 훈련에 투입됨으로써 재난대응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효과를 거뒀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순창군, 결핵무료검진 실시

순창군이 집단시설 종사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4일 결핵무료검진을 실시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다.

이번 무료 검진은 관내 고등학교 3개교, 의료기관, 아동·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진행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은 BCG 접종 후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로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수가 많고 감염도가 높아 집단결핵발병 위험이 높다.

이에 순창군보건의료원은 결핵협회전북지부와 함께 학생들의 결핵발병률을 줄이고자 고등학교2~3학년은 흉부-X선 촬영, 고등학교 1학년은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학생대상 결핵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콤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